

‘현미경 청문회’ 베풀는 야당

■ 이완구 총리 내정자 청문회 통과할까

능력·비전·청렴·도덕성... 책임총리 자격 따져

차남과 본인 병역 문제 집중 검증대상 오를듯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3일 집권 3년차 내각 수장으로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를 내정함에 따라 국회 청문회 관련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이 후보자가 청문회 과정에서 난관에 봉착하면 박 대통령의 국정세신 행보도 꼬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여권에서는 2기 내각 총리 후보자였던 안대희, 문창극 후보자가 지난해 전란에 휩쓸려 인신 논란으로 잇따라 낙마하는 사태를 겪었다는 점에서 이번 청문회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에서는 이 후보자에 대한 능력과 정책비전, 청렴·도덕성 등을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야권에서는 이 후보자의 ‘책임 총리’ 자격을 따지겠다는 방침이다.

박근혜 정부 들어 청와대와 야당의 관계가 날로 악화하고 최근에는 당·청 관계까지 삐걱거리고 있어 이 후보자가 대통령의 입정에만 치우치지 않고 소신 있게 일할 수 있을지를 따지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 후보자의 도지사 재임 시절 도

정활동이나 국회에서의 의정 활동 등이 주요 표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청문회에서 개헌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들며 개헌론 확산을 꾀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함께 차남과 후보자 본인의 병역 문제가 집중 검증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이 후보자의 차남은 2000년 3급 현역 임명대상으로 판정받았지만 대학 재학과 유학을 이유로 3차례(2000~2002년, 2003~2005년, 2005~2006년) 임명연기를 했다. 2005년에는 4급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 판정을 받았지만, 2006년 ‘불완전성 무류관찰’이라는 질병을 이유로 5급을 받아 병역을 면제받았다.

이 후보자 측은 “미국 유학시절인 2005년 12월 운동을 하다 심저근대과 파열돼 부상했고 이듬해인 2006년 국내 병원에서 철심을 박는 수술을 받았다”면서 “현재도 철심을 박은 상태”라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 본인도 1976년 5월 입영한 뒤 1년

만인 1977년 4월 육군 일병으로 소집해제됐다.

이 후보자 측은 이와 관련해서도 “어릴 때부터 발목뼈에 이상이 있어서 방위(보충역) 판정을 받아 입영했고, 1년 간의 병역을 정상적으로 마치고 소집해제된 것”이라며 “발목뼈 엑스레이는 지금도 보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이완구 후보자의 무난한 청문회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

새누리당 김영우 대변인은 이 후보자에 대해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해 충남도지사, 3선의 국회의원을 역임하며 풍부한 행정 경험과 국정 전반에 대한 이해력을 충실히 갖췄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새누리당은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다음 달 4~5일경 열자고 새정치연합에 제의하는 등 즉각 청문회 준비에 들어갔다. 이완구 총리 체제의 내각을 조기에 안정시켜 조속히 국정동력을 회복하겠다는 의지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바빠진 여 원내대표 경선

유승민-이주영 양강구도

오늘 경선일정 등 확정 방침

이완구 원내대표가 총리 지명과 함께 당직을 사퇴하면서 새누리당 원내대표 경선이 조기 접화됐다.

새누리당은 일단 25일자로 이 원내대표 사의를 공식화하고 26일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경선 일정을 확정할 방침이다.

현재까지 원내대표 자리를 놓고는 해양수산부장관에서 물러난 뒤 친박 주류 측과 손잡는 모습을 보여온 이주영 의원(4선)과 ‘원박’(원조 친박)을 지향했지만 상대적으로 친박 주류 측과 거리를 뒀던 유승민 의원(3선) 이미 경합이 치열한 상황이다.

우선, 이 의원이 25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출마를 공식화했다. 그는 출마 회견을 통해 “많은 분이 당의 미래를 걱정하고 나라에 위기가 닥치지 않을까 우려한다”면서 “소스리보다 더 강한 것이 바로 좋은 소리로서 국민과 나라를 위한 좋은 소리를 내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당내에 불필요한 잡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내대표로서 소통과 화합의 아이콘이 되겠다”면서 “혁신의 아이콘 김무성 대표와 똘똘 뭉쳐 여권의 결속으로 박근혜 정부를 성공시키고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선 일정이 확정된 직후 출마 의사를 밝힌 예정이다.

여기다 또 다른 친박 핵심으로 수도권 출신인 홍문종 국회 미방위원장(3선)도 도전을 저울질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수도권 4선인 정병국, 원우철, 심재철 의원도 나란히 출마를 검토 중이다.

이 원내대표 임기가 만료되는 오는 5월로 경선을 예상, 대부분 주자들이 아직 정책위의장 리닝메이트도 정하지 않아 ‘리닝메이트’ 잡기가 당면과제가 될 전망이다.

이주영 의원은 홍문종 의원과 단일화를 시도해 정책위의장으로 함께 출마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전해지며, 유승민 의원은 당내 유일한 여성 3선인 나경원 의원을 포함해 수도권 3선을 놓고 두루 접촉 중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野 당권주자+최고위원 후보 ‘짜짓기’

새정치민주연합의 당권 레이스가 반란점을 넘어서 가운데 당권 주자들과 최고위원 후보들 간의 제휴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 실현 여부가 주목된다.

당권 주자들은 전반적인 판세가 혼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물 밑 연대를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합격선’에 걸려있는 최고위원 후보들이 ‘짜짓기’에 더욱 적극적인 모습에서 경선 막판 합종연횡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특히, 합종연횡 자체가 ‘친노와 비노’ 구도로 형성되고 있다는 점에서 대표 경선은 물론 최고위원 경선 결과를 놓고도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되고 있다.

고 김근태 의장 계열인 이목희 최고위원 후보는 레이스 후반 들어 확실히 당권주자인 문재인 후보 편에 선 모습이다. 이 후보는 지난 22일 충북 합동연설회에서 박지원 후보에게 “더는 당권-대권 분리론을 거론하지 말라”고 요구하며 사실상 문재인 후보 지지 행보를 나타냈다.

최근 선두권에서 밀리고 있다는 오영식 후보도 ‘네거티브를 중단하라’는 특별성명을 냈는데, 이를 두고 문 후보에게 손을 내민 것이라는 해석이 뒤따랐다. 정정래 최고위원 후보는 문재인 후보와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막판 상황에 따라 연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반면 비노 그룹인데다 호남 출신인 주승용, 문병호 후보는 ‘계파 프레임’과 출신 지역 때문에 박지원 후보와의 연대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주승용과 문 후보는 그동안 계파 독점주의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친노계에 날을 세웠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25일 오후 대구 북구 산격동 엑스코에서 열린 새정치 민주연합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 문재인, 이인영, 박지원(왼쪽부터) 당대표 후보가 연설을 위해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이목희·오영식, 박지원-주승용·문병호 거론 속

경선 막판 혼전 양상 속 친노-비노 제휴 움직임 주목

광주 서울 보선 새누리 후보 김균진·조준성 2명 공천 신청

새누리당이 오는 4월29일 실시되는 재보궐 선거 공천 후보자 접수를 마감한 결과 광주 서구를 보궐선거에 2명이 공천을 신청해 경선이 이뤄질 전망이다.

25일 새누리당에 따르면 23일 공천 신청을

마감한 결과 광주 서구청은 전 동신대학교 겸임교수인 김균진 새누리당 중앙위원회 행정자치분과위원장, 이정현 의원 보좌역과 새누리당 광주시당 사무처장을 맡았던 조준성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치분과위원장이 공천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두 명의 경선 후보가 경선을 통해 최종 후보로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새누리당 4·29 재보선 공천위는 100% 여론조사로, 늦어도 다음 달 2일까지는 공천을 확정할 계획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泰山’ 김무성 큰 꿈 꾸나

원불교서 법호 받아... 원음방송 인허가 등 도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최근 전북을 방문할 때 마지막 일정으로 익산 신음동 원불교중앙총부를 찾아 장음철 원불교 총법사를 예방한 자리에서 ‘태산(泰山)’이라는 법호를 받았다.

모친이 독실한 원불교 신자였던 김 대표는 그동안 원음방송 인허가 등 원불교에 많은 도움을 줬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자리에서 장 총법사는 “태산은 만물을 하나로 융화시키는 일을 해야 한다. 국가의 큰 인물이 되십사 기원하는 뜻”이라고 덕담했고, 김 대표는 “정치가 모든 역사를 다 품고 보듬는 통 큰 정치를 해야만 우리 사회가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더 열심히 잘해서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큰 정치를 하겠다”고 화답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새누리당 내에선 YS(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호가 ‘거산(巨山)’이었다는 점을 거론하며 “상도동계인 김 대표가 ‘태산’이란 법호를 받은 것은 대권 도전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KBS1TV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 (백명숙 이사, 유경선 원장 출연)

빠른 성사! 결혼성사시까지...

중매잘한다~ 성사잘한다~ 소문!

회장 : 서울대학교 법대출업 (광주 서석초등학교 졸업,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 한국도로공사 다년재직)

서울대학교총동창회 결혼정보서비스업체

초혼	추천 회원	재혼
남 의사, 변호사, 약사, 한의사 27-45세 편사, 검사, 변호사, 회계사 28-47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사법, 행정고시 합격자 VIP 삼성, 현대, LG 직원 28-47세 은행원, 연구원 29-49세 대(중,소)기업 직원 27-48세 사업가, 자영업 29-39세 새우사, 연구원 29-48세 국영기업체 직원 29-39세 교사, 교수 28-49세	여 전문직 희망 여성 25-38세 오케스트라연, 회사원 26-41세 간호사, 유치원 교사 27-42세 의사, 약사, 교사 25-39세 변호사, 회계사, 변호사 26-39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정부투자기관 직원 25-38세 간호사, 은행원 26-47세 학원(음악)원장, 강사 27-42세 스타벅스, 영양사 26-42세 미스코리아, 미스전복 27-36세	남 의사, 변호사 32-65세 국영기업체 기관장 52-66세 공무원, 교사, 교수 35-65세 대기업 간부 36-59세 회사원, 자영업 33-67세 '무출산 여성' 희망 31-58세

임페리얼 클럽

강남역 7번출구 70m 441호 B106호

02) 521-4405

호남지사 (063) 275-7766

2015학년도 광신대학교 학부/대학원 편입생 모집

계열	모집학과	모집인원	
		정원내	정원외
		일반편입 (3학년)	학사편입 (3학년)
인문	신학과	4	
	국제한국어교원학과	1	1
사회	사회복지상담학과	4	
사범	유아교육과	3	1
예능	음악학과	6	2

※ 음악학과 전공 ▶ 피아노, 성악, 관·현악(타악, 클래식기타 포함), 오르간, 작곡, 교회음악

1. 전형일정
 ① 원서접수 : 2015. 1. 26(월) ~2. 2(월)
 ※서류심사 관계로 제출서류는 기간 내에 등기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해야 한다.
 ② 전형일 : 2015. 2. 4(수) 오전 10:00

1.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1. 지원자격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신학 관련 대학원에서 2학기 이상 수료한 자로 아래 세부 지원 자격에 해당하는 자
 (단, 본교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신학연구(학)과(M.A.T.) 재학, 수료, 졸업자 포함)

모집학년	모집인원	지원자격
2학년	00명(주·야)	2학기 이상 수료
3학년	00명(주·야)	4학기 이상 수료

광신대학교!!

광신대학교!!

500-710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백지소로 36
 입학문의 ▶ 대학원 062) 605-1115 학부 062)605-1114